

중국, 한국 무역적자 452억달러

2006년 한-중 무역규모 1343억달러 ... 중국 직접투자 342억달러

2006년 한-중 쌍무무역 총액은 1343억800만달러로 2005년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중국 언론이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1월16일 보도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445억2900만달러로 26.8%, 수입은 897억7900만달러로 16.9% 증가해 452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무역적자 폭은 2005년의 417달러에 비해 8.6%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계액은 2006년 11월말 현재 342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는 최근 들어 중소기업 투자규모 확대, 3차산업 투자비율 증가, 중서부지역으로의 투자 대상지역 확대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 대해 4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수출시장·직접투자국가이자 유럽연합(EU)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제외하고는 2번째로 큰 수입시장의 자리를 유지했다.

2007년 양국의 쌍무무역액은 15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국은 정상외 합의에 따라 2012년까지 쌍무무역액을 20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앞당겨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6>